

“베이비페어 열었다 1억 손실” 전시·컨벤션 코로나 쇼크

대형행사들 줄줄이 취소·연가...이벤트업체들 고사위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3주 동안 사진전시 한 건 유일

“수개월을 준비해 베이비페어를 열었지만 찾는 이 없어 고스란히 1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광주서 웨딩박람회나 아기용품 전문 전시회인 베이비페어 등을 주로 기획하고 전시하는 A씨, 그는 지난 주 광주의 한 대형 공간에서 베이비페어를 개최했지만 행사기간 4일 동안 행사장을 찾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는데다 특히 아이들의 감염을 우려해 집 밖 외출을 피하면서 행사장은 개점휴업상태만 지속되다 막을 내

렸다. A씨는 “행사장을 예약하고 참가업체를 모집하는 등 수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토로했다.

국내 전시컨벤션 업계 규모는 연간 경제효과가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연초부터 관련 업계가 쇼크상태에 빠졌다.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경우 25일 현재 진행중인 전시행사는 사진전시회 하나가 유일하다.

이 전시회는 지난 12월 개막해 4월까지 진행되는 장기 전시회

다. 이 사진전시회를 제외하고 3월 첫주 금요일까지 3주 동안 예약된 이벤트나 회의컨벤션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예약된 행사들을 모두 3월 이후 등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행사 주최 측과 협의해 긴급적 일정을 뒤로 늦추고, 부득이 행사를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받지 않고 있다.

대형행사들을 기획하고 개최하는 이벤트 업체들의 고민은 더욱 깊다.

당장 여러 지자체들이 3월을 맞아 여는 주요 꽃축제들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사람이 물리는 행사들은 전면 취소나 연기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심각한 경영난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 사업계획 역시 확정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4월 광주에서 대형 창업·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준비 중인 B업체도 행사일정은 잡아뒀지만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취소해야 하는 것이냐는 우려가 높다.

B업체 관계자는 “행사는 어떻게 열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면 그 박람회는 실패한 것이 된다”며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경우 25일 현재 진행중인 전시행사는 사진전시회 하나가 유일하다.

다. 시민들의 정상적인 경제·소비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는데다 코로나19 사태가 견잡을 수 없게 확산

되자 정부도 “열나고 기침하면 학교·직장 가지마라”고 예방수칙을 개정하면서 전시컨벤션 업계의 타격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가계빚 1600조 돌파 ‘사상 최대’...작년 증가율은 16년만에 최저

4분기 가계신용 증가율 2년래 최고...‘부동산 대책 영향 아직’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6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그러나 연간 증가율은 4.1%(63조4000억원)로 2003년(1.6%)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이후 꾸준히 둔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4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12월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600조 1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6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말 대비 증가율은 63조4000억원(4.1%)

이다. 증가율은 2016년(139조4000억원) 이후 2017년(108조1000억원), 2018년(86조1000억원) 지속적으로 줄었다.

가계신용 증가율도 2016년 11.6%에서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 시행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꾸준히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가계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판매신용) 등 앞으로 갚아야 할 부채를 합친 것이다.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3분기 자금순환표 기준 96.6%를 나타내 전기 95.6%보다 다소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최근 둔화됐지만 명목 GDP 증가율을 다소 상회하는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위험 수위인지에 대해선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저희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을 피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150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8000억원(4.0%)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율 중 주택담보대출은 34조9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2조9000억원을 차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54조 6000억원 늘었다. 이중 주담대는 39조7000억원, 기타대출은 14조 9000억원이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4조5000억원 줄었다. 주담대가 10조4000억원 감소했고, 기타대출이 6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7조6000억원이었다. 판매신용 잔액은 95조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6000억원(6.2%) 늘었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4분기 중 전년 대비 가계신용 증가 규모는 27조6000억원으로 2017년 4분기(31조5000억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컸다. 증가율은 1.8%로 이 역시 2017년 4분기(2.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가계대출 증감액은 23조 원으로 2017년 4분기(28조7000억원) 이후 최대치였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1.6%로 2018년 2분기(1.6%)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주담대는 12조6000억원, 기타대출은 1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판매신용은 증감액은 4조6000억원으로 2016년 4분기(4조8000억원) 이후 최대였다. 판매신용 증감률은 5.1%로 2016년 4분기(7.1%) 이후 최고치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거래는 중도금, 전금 관련 2-3개월 시차가 존재한다”며 12·16안정화 정책 효과는 2분기 정도나 울지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돼지값 폭락했는데 삼겹살이 여전히 ‘금겹살’인 이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돼지고기 산지 가격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삼겹살 가격은 여전히 ‘금겹살’에 가깝다.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돼지고기 평균 산지가격은 kg당 337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53원)에 비해 5.2% 하락했다.

이러한 돼지고기 산지가격은 영세 농가의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양돈농가의 줄도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삼겹살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양상이다. 소비자 가격에 대형마트·정육점에서 구입하는 삼겹살 가격은 산지가격의 5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달 국내 삼겹살 1kg당 가격은 1만6903원이었다. 이후 1월31일 1만5593원 → 2월7일 1만5973원 → 2월14일 1만4476원 → 21일 1만7107원을 기록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했지만 삼겹살 가격은 최근들어 되레 오른 셈이다.

앞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 생산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1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사육 마릿수 감소 영향으로 돼지 도축 마릿수가 전년 같은 기간(173마리)에 비해 9.4~12.2% 적은 152만~157만 마리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여기에 불철을 맞아 수요가 더욱 늘면서 삼겹살 가격이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돼지고기 수요가 적지만 날씨가 풀리는 2월에서 3월이 되면 수요가 크게 시작해 5월이 되면 가격이 제일 비싸진다”며 “특히나 삼겹살의 인기가 많다보니 수요가 줄더라도 가격이 덜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가격 조절 기능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비축물이 과도하게 많이 쌓인다면 불공정 거래 여부를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자다방 매출 왜 급감 하고 있나

“‘청자다방’을 신천지가 운영한다고 또 근거 없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점포의 매출은 급감하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신천지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슈퍼 감염자’로 지목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커피 프랜차이즈가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108개 점포를 갖고 있는 군고구마 카페 ‘청자다방’이 억울한 사연의 주인공이다. 청자다방은 광주에 73곳, 전남에 22개의 가맹점을 영업 중이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청자다방이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신천지 파문에 매출이 절반 이하로 급락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

각종 모임 취소와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전반적인 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 하더라도 매출 감소폭은 예상보다 크다.

그 배경에는 근거 없는 ‘신천지 연루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확산되는 메시지는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청자다방을 가시면 안됩니다. 광주시내에 약 50곳 이상의 청자다방이 있다고 합니다”라는 등의 글이 적혀있다.

이로 인해 음료 주문을 위해 카페 앞까지 왔다가도 일행이 “여기 신천지가 운영하는 곳이야”라며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부지기수다.

점주들은 해명할 시간도 없이 손님은 나가버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소문이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점포 매출이 30~40%까지 떨어졌고, 평소 10건의 가맹점 문의 전화가

본사로 오지만 문자메시지가 퍼진 뒤로는 한 통의 문의전화도 오지 않고 있다.

최근 경남 사천에서는 가맹점 구두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이 늦춰지기까지 했다.

청자다방은 지난 2017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당시 SNS를 통해 ‘청자다방은 신천지 포교용 커피 전문점’이라는 소문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그 이유는 바로 청자다방의 심벌마크 때문이었다. 간판에는 청자다방 앞에 ‘S’ 모양의 심벌마크가 있는데 이를 두고서 ‘S청자다방’이 적힌 간판을 ‘청자’의 초성을 떼서 ‘S청자다방’, 곧 ‘신천지다방’이라는 말이 확산됐다.

이같은 소문에 청자다방 본사는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S’ 모양의 심벌마크는 한국적 카페인 다방을 표현하기 위해 한국 전통의 공간인 기와 모양과 커피의 물방울을 모티브로 기와 위로 커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신천지 연루 논란은 지난해도 확산한 데 이어 이번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되면서 이 소문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청자다방 측은 문자메시지로 소문을 퍼트린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소문이 더욱 확산되기 전에 빠른 대처로 오해를 벗겠다는 의지다.

청자다방 관계자는 “회사 대표가 모태신앙이다. 대표의 아버지도 목사, 친형도 목사 일을 하고 있다”며 “믿도 끌도 없는 ‘카더라 통신’ 때문에 많은 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팀라향맛 보세요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국산 청경오렌지와 흥진조생감귤 품종의 조합중심 '팀라향'을 선보이고 있다.

회식은커녕 사업장 폐쇄 걱정...코로나19에 떨고 있는 기업들

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기업들도 초비상이 걸렸다.

불과 10여 일 전인 지난 13일만 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직원들의 저녁 회식과 주변 식당에서의 점심을 권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에 이어 LG그룹도 25일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LG그룹은 “인산부 직원의 경우 필요기간 동안 재택근무토록 하고 유치원과 여

린이집의 휴원과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 육아를 위해 재택근무가 필요한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LG그룹은 임직원들이 식사를 분산해 할 수 있도록 전 사업장의 사내식당 운영시간을 오히려 연장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인천사업장 연구원의 4세 자녀가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남 인천사업장 연구동을 폐쇄한 바 있다. 방역작업을 마친 LG전자는 25일부터는 연구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여부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LG그룹은

연례적으로 미국에서 수백 명이 모여 만찬을 포함해 장시간 진행하는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채용 설명 행사 ‘LG 테크 콘퍼런스’를 참석자 안전을 위해 취소하기로 했다.

최태원 회장이 ‘주일에 한 차례 점심때 구내식당을 닫겠다’고 했던 SK그룹도 전폭 움직이고 있다. SK그룹은 전날인 24일부터 사업별로 임구를 통제하며 출입자들의 체온을 일일이 체크한 데 이어 안전환경경영 비상회의를 열고 재택근무를 권장기로 했다. 특히 최소인력만 남겨두고 직원들이 다음 달 6일까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